

Session 1 Betrayal: Its Prominence & Importance in God's End-Time Plan

세션 1: 배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배신과 이것의 중요성

“Let me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s as I delight in Your beauty” (Ps. 36:8; 37:4)

“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시 36:8; 37:4)

I. THE END-TIME CHURCH IS TRANSFORMED IN CONTEXT TO BETRAYAL

배신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마지막 때 교회

- A. Betrayal is part of the optimum environment for the Church to be transformed in order to relate as an unified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Jn. 17:22-23). Multitudes in the end-time Church will be progressing toward mature love (Jn. 17:23), while many others will be overcome with offense that will lead them to betray other believers—even some of their loved ones (Mt. 24:10). 배신은 교회가 국제적인 사랑의 가족으로 연합 관계를 맺기 위해 이루어야 하는 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의 한 부분이다 (요 17:22-23). 마지막 때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며 (요 17:23), 반면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른 믿는 자들, 심지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도록 이끄는 범죄에 압도당할 것이다 (마 24:10).
- ²²“And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just as We are one: ²³...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Jn. 17:22-23)
²²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²³...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2-23)
- ¹⁰“And then many will be offended, will betray one another... ¹²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¹⁴This gospel...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then the end will come.” (Mt. 24:10-14)
¹⁰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 ¹²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¹⁴이 천국 복음이 ...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0-14)
- ¹⁶“You will be betrayed even by parents and brothers, relatives and friends...” (Lk. 21:16)
¹⁶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 (눅 21:26)
- B. On Tuesday, Jesus prophesied that His disciples would be betrayed—by definition, betrayal is in context to a close relationship—including family and friends (Mt. 24:10; Mk. 13:12; Lk. 21:16). There will be a global culture of betrayal in the nations that will include many in the church. The increase of betrayal is the context in which the gospel is preached to all nations (Mt. 24:10-14). 화요일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배신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배신은 가족과 친구를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마 24:10; 막 13:12; 눅 21:16).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한 배신이 세계적 문화현상처럼 일어날 것이다. 배신의 증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배경이 될 것이다 (마 24:10-14).

- C. Betrayal is both a demonic attack to hinder our spiritual growth and a divine gift to enhance it. God granted and appointed that His people endure being persecuted and betrayed (Phil. 1:29; 1 Thes. 3:3) that they may be transformed by it—leading to great benefit to them in this age and the age to come. 배신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인 동시에 그것을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핍박과 배신을 견디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임명하셨으며 (빌 1:29; 살전 3:3) 그것으로 변화되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하셨다.

29For to you it has been granted on behalf of Christ...to suffer for His sake... (Phil. 1:29)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 1:29)**

- D. Paul rejoiced in the opportunity to magnify how attractive Jesus is to an unbelieving world by loving and trusting His leadership while being persecuted. Believers who faithfully love Jesus even when persecuted are a “living portrait,” giving a public display of how glorious Jesus is to them.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분의 리더십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믿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기뻐했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신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초상화”다.

24I rejoice in my sufferings...and fill up in my flesh what is lacking in the afflictions of Christ... (Col. 1:24)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

- E. Many believers will be transformed by responding in a godly way to Christians who betray them. Betrayal is an “**accelerant**” that leads to faster growth in humble love *or* in bitterness and offense.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통해 변화하게 될 것이다. 배신은 겸손한 사랑이나 쓰라림과 분노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촉진제”다.
- F. It is normal to be tempted to be offended with those we feel are responsible for mistreating us or blocking our expectations and goals (that we feel entitled to). When we are offended with someone, then it is easy to betray them and justify it biblically as contending for justice and righteousness. 우리를 학대하거나 우리의 기대와 목표 (우리가 마땅하다고 느끼는)를 차단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싶은 유혹은 정상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분이 상하면 그들을 배신하고 정의와 의를 위해 다투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기 쉽다.
- G. Not all persecution is betrayal, and not all betrayal is persecution. Most betrayal is the result of being offended, but some betrayal comes out of fear (social credit score) or for financial gain, etc. 모든 박해가 배신은 아니며, 모든 배신이 박해는 아니다. 대부분의 배신은 기분이 상해서 일어나지만 어떤 배신은 두려움(사회적 신용 점수)이나 금전적 이익 등에서 기인한다.

- H. One of Satan’s most important weapons against God’s people is accusation (Rev. 12:10). That is one reason why the Lord has prophetically emphasized Zechariah 3-4 to our spiritual family.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는 참소다 (계 12:10).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스가랴 3-4 장을 우리 영적 가족에게 예언적으로 강조하신 이유다.

¹⁰...the power of Christ [is manifest]...the accuser of our brethren...has been cast down. ¹¹They overcame him by the blood of the Lamb...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to the death. (Rev. 12:10-11)
¹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¹¹...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0-11)

II. SEE OTHER MIKE BICKLE MESSAGES ON PERSECUTION AND BETRAYAL
박해와 배반에 관한 다른 마이크 비클(MIKE BICKLE)의 메시지 보기

- A. Four messages given in 2023 related to end-time persecution and betrayal from John 15-16:
2023 년 요한복음 15-16 장의 마지막 때의 핍박과 배도와 관련된 네 가지 메시지:
The Certainty of Persecution in the West & Its Blessing (Jn. 15:18-24)
서양에서의 확실한 박해와 그 축복 (요 15:18-24)

Persecution: The Seminary of the Holy Spirit (Jn. 16:1-4)
박해: 성령의 신학교(요 16:1-4)

Encountering God’s Glory in the Face of Betrayal (Jn. 16:2)
배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다(요 16:2)

How Jesus Prepares Us To Overcome Offense (Jn. 16:5-7)
반감을 극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요 16:5-7)

- B. Three messages related to betrayal and my prophetic encounter with the Black Horse in 1984
1984 년 검은 말과의 예언적 만남과 배신과 관련된 세 가지 메시지

Link to Mike’s message “Embracing God’s Narrative When Mistreated” (My Black Horse encounter) (Sept. 13, 2020)

마이크 목사님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기” 메시지 링크
(검은 말 인카운터, 2020 년 9 월 13 일)

<https://mikebickle.org/resource/mature-love-embracing-gods-narrative-when-mistreated/>

See Link to Mike’s message “The Blueprint Prophecy and the Black Horse” (Sept. 14, 2019)

마이크 목사님의 “청사진 예언과 검은 말” 메시지 링크 (2019 년 9 월 14 일)

<https://mikebickle.org/resource/the-blueprint-prophecy-and-the-black-horse/>

See Link to “The Black Horse: Zechariah 3-4 unto Isaiah 19 and John 17” (Aug. 30, 2020)

“검은 말: 스가랴 3-4 장에서 이사야 19 장과 요한복음 17 장으로” 링크(2020 년 8 월 30 일)

<https://mikebickle.org/resource/the-black-horse-zechariah-3-4-unto-isaiah-19-and-john-17/>

III. THE IMPORTANCE OF PREPARING GOD’S PEOPLE FOR PERSECUTION

박해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의 중요성

- A. On Tuesday (Mt. 24-25) and Thursday (Jn. 13-17) of Jesus’ final week of ministry, He elaborated on what discipleship includes—highlighting *the joyful and painful aspects*. Jesus prophesied two details about the pressure they would experience (Jn. 16:2). He knew it would be shocking news that some would be betrayed and excommunicated from their spiritual families (synagogues) or killed by religious leaders. All the apostles were cast out of their synagogues, killed, or imprisoned.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 화요일 (마 24-25 일)과 목요일 (요 13-17 일)에 제자도에 포함된 기쁨과 고통의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겪게 될 압박에 대해 두 가지 세부 사항을 예언하셨다 (요 16:2). 주님은 일부 사람들이 배반당하고 그들의 영적 가족(회당)에서 파문당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 모든 사도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투옥되었다.

²⁶When the Helper [the Spirit] comes...He will testify of Me [reveal more of Me]. ²⁷And you will bear witness...^{16: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you should not be made to stumble [be overcome by offense]. ²They wi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and] kill you....” (Jn. 15:26-16:2)

²⁶...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²⁷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¹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²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 너희를 죽이는 자가 ... (요 15:26-16:2)

- B. ***He will testify of Me*** (15:26): In the context of persecution, the Spirit will teach God’s people to understand and align themselves more to Jesus’ heart, leadership, and eternal values—so they *grow in love* for God and people by growing in *purity, humility, mercy, generosity, gratitude* by seeing Jesus as their *primary reward* (Gen. 15:1) and *source* of promotion, security, provision, etc.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5:26): 박해의 상황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리더십, 영원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된 보상(창 15:1)이자 높아짐, 안전, 공급의 원천으로 바라보며 순결과 겸손, 자비, 관대함, 감사가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자란다.
- C. ***That you not stumble***: Our greatest danger is not in being betrayed but in responding to it in a wrong way, leading to our spiritual failure and falling short of the grace of God (Heb. 12:14-15). Jesus’ reason for emphasizing persecution and betrayal (Mt. 24: Jn. 14-16) was that they not *fall away* from the faith (16:1)—they not *be offended* (KJV), or *go stray* (NIV). The Greek verb, “stumble,” (*skandalizmao*) means to fall from one’s faith—to be forewarned is to be forearmed.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배신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영적 실패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다 (히 12:14-15). 예수님께서 썩박과 배신을 강조한 이유(마 24:요 14-16)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16:1), 실족하지 아니하며(KJV) 걸길로 가지 않게(NIV)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어 동사 “넘어지다”(skandalizmao)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미리 경고하는 것은 무장하기 위함이다

¹⁴Pursue peace with all people...¹⁵looking carefully lest anyone fall short of the grace of God; lest any root of bitterness [offense] springing up cause trouble, and by this many become defiled. (Heb. 12:14-15)

¹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¹⁵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화남]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 12:14-15)

- D. An offended believer becomes a stumbling block that is used by the enemy to defile and tempt the very ones they betray to also be offended and thus become one who also betrays.

마음이 상한 신자는 적이 더럽히는데 사용하는 걸림돌이 되어 그들이 배반하는 바로 그 사람들도 마음을 상하게 하여 배반하는 자가 되도록 유혹한다.

¹“Temptations to sin are sure to come [via betrayal], but woe to the one through whom they come!” (Lk. 17:1, ESV)

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배신을 통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눅 17:1)

- E. I have often witnessed the **offense-betrayal cycle** that results in an increase of broken relationships. An offended person is vulnerable to betray the one who offended them. Then the betrayed believer becomes vulnerable to be offended and then betray the one who initially betrayed them, etc.

나는 종종 마음이 **상함-배신의 순환**의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기분이 상한 사람은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배신하기 쉽다. 그런 다음 배신당한 신자는 기분이 상하기 쉬우며 처음에 배신한 그 사람을 배신한다.

- F. The promise of the seal of divine love in Song 8:6 includes the Lord giving the worldwide body of Christ grace to love even the offended ones who betray us—“love as strong as death”(Song 8:6). Specifically, this love is love for the Bridegroom King who loves us and those who betray us. The “oil of intimacy” is cultivated best in the fires of persecution including being betrayed.

아가서 8 장 6 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인치심의 약속에는 주님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배반하는 마음 상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왕과 우리를 배신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다. “친밀감의 기름”은 배신을 포함하여 박해의 불 속에서 가장 잘 키워진다.

⁶Set Me as a seal upon your heart...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Song 8:6)

⁶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아 8:6)

IV. DAVID IS A MODEL OF HOW TO RESPOND TO GOD WHEN MISTREATED

학대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는 다윗

- A. Scripture gives far more information in the life of David about how to rightly respond to God when being persecuted by religious leaders than in any other person. Jesus understood that David was the main example in the Scripture that the apostles had as a reference for responding to persecution. David is a witness or model of how to respond to God in being trained to a be leader after God's heart (Isa. 55:4). He is a model of how to respond to betrayal (Ps. 41:9-13; 55:12-21; 69:4-18). 성경은 다윗의 삶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박해에 대응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가 다윗이라고 이해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인 또는 모델이며 (사 55:4), 배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다 (시 41:9-13; 55:12-21; 69:4-18).

⁴I have given him [David] as a witness [model] to the people, a leader... (Isa. 55:4)

⁴ 보라 내가 그를 [다윗] 만민에게 증인 [모델] 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사 55:4)

- B. Over 50 years, David was betrayed by **family members** (Saul, Ammon, Absalom, Michal, Adonijah, Joab, Ish-bosheth, his own brothers (Ps. 69:7-12), by **his own men** (Ziklag; 1 Sam. 30), by **top political** (Ahithophel) and **military leaders** (Abner, 2 Sam. 3:9), by his **countrymen** (Ziphites and at Keilah), the **army of Israel** (with Saul, then Absalom), and **others** (Shimei, Doeg, etc.). 50년이 넘게 다윗은 가족 구성원들(사울, 암몬, 압살롬, 미갈, 아도니야, 요압, 이스보셋, 자기 형제들(시 69:7-12), 자기 부하들(시글락; 삼상 30 장), 최고 정치인들(아히도벨)과 군사 지도자들(아브넬, 삼하 3:9), 그의 동족들(그일라), 이스라엘 군대(사울과 함께, 그 후 압살롬), 그리고 다른 사람들(시므이, 도엑 등)에게 배신당했다.
- C. God raised David up as king after His heart, teaching him to understand and align himself to God's leadership—that David would learn to *love* God and grow in *purity, humility, mercy, generosity*, by seeing God as his *primary reward* and *source* of promotion, security, and provision. God trained him in the **“seminary of the Spirit”** using a wicked King Saul and many others who betrayed him.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따를 것을 가르치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주된 상급이자 높아짐, 안전, 공급의 원천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 겸손, 자비, 너그러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악한 사울 왕과 그를 배신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령의 신학교”에서 훈련시켰다.

- D. David was betrayed many times yet showed kindness because he looked to God to vindicate him in His own way and timing. He refused to yield to his natural desire to fight back or complain against Saul or the others who betrayed him or sought to block his godly promises, plans, and goals. David invoked God’s intervention by saying, “**let God judge or decide**” (1 Sam. 24:15), knowing that in God’s timing wrong things would be made right without David taking matters into his hands. 다윗은 여러 번 배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때에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친절을 베풀었다. 다윗은 사울 혹은 그를 배반하거나 그의 경건한 연약과 계획과 목표를 막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반격하거나 불평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나 결정하십시오**”(삼상 24:15)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손에 문제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¹⁵“**Let the LORD be judge, and [decide; NAS] between you [King Saul] and me...**” (1 Sam. 24:15)

¹⁵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 (삼상 24:15)**

- E. David found Saul sleeping in a cave in En Gedi and refused to harm him. He even stopped his men from harming Saul (1 Sam. 24:6-7). David entrusted his cause into God’s hands (1 Sam. 24:12, 15). Later, David committed his cause into God’s hands after again finding Saul sleeping (1 Sam. 26). Again he refused to harm him (26:9-12) but committed his cause into God’s hands (1 Sam. 26:24). 다윗은 엔게디의 동굴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삼상 24:6-7). 다윗은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삼상 24:12, 15). 후에 다윗은 다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후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삼상 26 장). 다시 그는 그를 해하기를 거절했지만(26:9-12) 그의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삼상 26:24).
- F. In Psalm 31, we see how David interacted with the Lord when he was mistreated and betrayed. By trusting God to intervene and by refusing to retaliate, *David brought God into the conflict*. To *commit our spirit* into God’s hands is to commit to God all that deeply touches our spirit—our reputation, money, safety, etc. Jesus as the “greater David” entrusted Himself to God (Lk. 23:46). 시편 31 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학대와 배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주님과 소통했는지를 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고 보복을 거부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분쟁에 끌어들이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우리의 영에 깊은 감동을 주는 모든 것, 즉 우리의 평판, 돈, 안전 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더 큰 다윗”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눅 23:46).

⁵**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¹⁵My times are in Your hand. (Ps. 31:5, 15)**

⁵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¹⁵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 (시 31:5, 15)

- G. My journey in the “seminary of the Spirit’s training” began in my first prophetic encounter as a pastor (Dec. 19, 1976), when the Lord told me that in the future many would oppose me, but my “greatness” would be related to receiving God’s gentleness and **responding to my adversaries in gentleness** and then by grace growing in the ability to impart this aspect of NT leadership to others (Ps. 18:35; Mt. 5:45).
“성령 훈련 신학교”에서의 나의 여정은 목회자로서 나의 첫 예언적 만남(1976년 12월 19일)에서 시작됐다. 그 때 주님은 나에게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것이지만, 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적들에게 온유함으로 응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 신약의 리더십의 이러한 측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성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 18:35; 마 5:45)
³⁵... **Your right hand has held me up.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Ps 18:35)**
³⁵...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 18:35)
- H. Jesus spoke of the blessing of not being offended when sorrowful events unfold in a way that His disciples do not expect.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the premier forerunner) were not fully prepared for the unexpected sorrowful events related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날 때 마음 상하지 않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슬픈 사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²**John...from prison...sent two of his disciples³ and said to Him, “Are You the One...?”**
⁴**Jesus answered..., “Tell John...⁵the blind see and the lame walk...and the deaf hear...**
⁶**Blessed is he who is not offended [skandalizo] because of Me.” (Mt. 11:2-6)**
² **요한이 옥에서 ... 제자들을 보내어³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
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요한에게 알리되⁵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 못 듣는 자가 들으며 ...⁶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skandalizo]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 11:2-6)**
- I. The Lord is leading His people into a John 17:22-23 transformation by *embracing and imparting Matthew 5:44*—to be like our Father. Embracing this ushers us into a supernatural lifestyle as we love those who betray us. He is not addressing self-defense against one who harms you physically. The call to love our enemies includes our **words** (bless), **deeds** (do good), and **prayers** (Mt. 5:44). It is an act of our will that transcends negative feelings. As we obey this, our feelings will change. 주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마태복음 5 장 44 절을 받아들이고 전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요한복음 17 장 22-23 절의 변화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자연적인 생활 방식으로 안내한다.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자기 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에는 우리의 말(축복)과 행함(선을 행함)과 기도가 포함된다(마 5:44).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한 우리 의지적 행동이다.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이 바뀔 것이다.
⁴⁴**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⁴⁵**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Mt. 5:44-45)****

⁴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⁴⁵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마 5:44-45)

¹⁸ Who is a God like You, pardoning iniquity...because He delights in mercy. (Mic. 7:18)

¹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 (미 7:18)

J. God wants us to have compassion on those who betray us, knowing plight of a betrayer is very hard. People who betray others suffer in ways that they did not anticipate (1 Pet. 4:15; Jas. 3:15). Satan stirred Judas to betray Jesus (Jn. 13:2). He was unable to get free from the dark dynamics of despair and hopelessness that resulted from opening the door to demons by his choices—he hung himself. David’s friend Ahithophel betrayed David and hung himself (2 Sam. 17:23; Ps. 41:9; 55:12-14).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배신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고통을 당한다(벧전 4:15; 약 3:15). 사단은 유다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다(요 13:2).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 준 절망의 어두운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었다.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했다(삼하 17:23; 시 41:9; 55:12-14).

K. God allows those who will betray to get into the inner circle of a leadership team in order to train and transform His servants (Jn. 6:64-71). Jesus felt anguish about Judas’s betrayal (Jn. 13:21) not because He felt rejected by it, but because He knew within 24 hours both of them would have died. That is, Jesus had anguish over the fate of a man whom He loved but who refused His kindness.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배도할 자들을 리더십 팀의 핵심 그룹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요 6:64-71).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요 13:21)에 대해 괴로움을 느끼신 것은 배척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24 시간 이내에 둘 다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지만 그분의 친절을 거절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셨다.

²¹ Jesus...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and said, “...one of you will betray Me.” (Jn. 13:21)

²¹ 예수께서 ...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 13:21)

L. The apostolic team was hurt by Judas’ betrayal of Jesus, which in essence was also a betrayal of them. Those who betray often do not consider the pain that others will suffer as a consequence of their betrayal. Jesus knew they would be betrayed many times even by some with whom they had worked in ministry. They saw how to respond to betrayal by watching how He responded that night. 사도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배신의 결과로 겪게 될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여러 번 배신당할 것을 아셨다. 그들은 그분이 그날 밤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므로써 배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았다.

⁴⁹ ...[Judas]...kissed Him. ⁵⁰ Jesus said, “Friend, why have you come?” (Mt. 26:49-50)

⁴⁹ ...[유다가] 입을 맞추니 ⁵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 (마 26:49-50)

²³*While being reviled, He [Jesus] did not revile in return; while suffering, He uttered no threats, but kept entrusting Himself to Him who judges righteously. (1 Pet. 2:23; NASB)*

²³[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